

선지자 고양이 vs 극장 고양이 “28년간 경쟁했지만 절친”

‘선지자 고양이’ 브래드 리틀· ‘극장 고양이’ 이안 존 버그 뮤지컬 ‘캣츠’ 내한 공연 2017년부터 세 시즌 연속 출연

“나에게 눈을 땔 수 없는 이유가 뭐지 알아요?”

회색빛 털에 거대한 몸집을 가진 선지자 고양이 ‘올드 듀터러노미’ 역의 배우 브래드 리틀(59)이 환한 미소로 유쾌한 농담을 던졌다. “다들 옛날에 집에 있었던 캣이라며 반가워하죠. 그 캣을 온몸에 두르고 있는 고양이니, 어떻게 눈을 땔어요.(웃음)”

세계적인 뮤지컬 스타 브래드 리틀은 뮤지컬 ‘캣츠’ 내한 공연에 2017년부터 올해까지 세 시즌 연속 출연하고 있다. 그와 30년 가까운 우정을 이어오고 있는 베테랑 배우 이안 존 버그(63)도 극장 고양이 ‘거스’ 역으로 2017년에 이어 다시 돌아왔다. 팀의 ‘만행’적인 두 배우를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만났다.

두 배우는 1984년 같은 해에 데뷔했다. ‘캣츠’ 뿐만 아니라 앤드루 로이드 웨버의 명작인 ‘오페라의 유령’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공통점이 있다.

둘의 인연도 1995년 ‘오페라의 유령’으로 시작됐다. 다른 역할로, 또 같은 역할로 무대에 서었다.

브래드 리틀은 2700회 이상 오페라의 유령을 연기한 기록을 세워 ‘세계 최다 팬텀’으로 유명하다.

이안 존 버그도 미국, 독일, 아시아 전역 30개 이상 극장의 약 300만명 관객 앞에서 유령 역을 연기한 전 세계 몇 안 되는 배우 중 한 명이다.

“저희는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왔음에도 평행선 같은 모습이 있어요. 비슷하거나 같

은 역할도 해왔죠. 어쩌면 평생 경쟁자의 길을 걸어왔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가까운 베스트 프렌드죠.”

◆브래드 리틀 “고양이들과 관객들 교감 부활해 ‘천국’…큰절은 내 아이디어”

이번 시즌엔 ‘캣츠’의 백미인 젤리클릭(1층 통로석)이 부활했다.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엔 메이크업 마스크를 썼고, 객석 동선에 제약을 뒀다. 3년 만에 돌아온 고양이들은 다시 1층 객석 통로에 자유롭게 출몰해 관객들과 눈을 맞추고 장난을 치고 있다. 본래 연출로 되살아난 모습에 브래드 리틀은 “천국”이라고 한마디로 답했다.

“이전엔 이 시간을 빼야 해서 슬펐죠. 관객들이 즐거워하는 반응이 들리면, 무대 위에서 저도 같이 즐거워져요. 감사함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플레이타임 외에도 관객과의 교감은 곳곳에서 이뤄진다. ‘캣츠’의 명곡인 ‘메모리’ 가사 중 일부를 아가 고양이 제마마가 한국어로 부르는 장면은 특별한 감동을 안긴다. 지난달 개막 첫 주에 맞은 설 연휴엔 올드 듀터러노미가 객석에 큰절을 올리는 깜짝 선물도 했다. 이 아이디어는 브래드 리틀이 직접 냈다.

“설날이니가 당연히 큰절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관객들이 생각보다 더 좋아해서 감사했다”고 말했다.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꼽는 그는 2005년 ‘오페라의 유령’ 내한공연을 시작으로 꾸준히 한국을 찾았고

2017년엔 한국인과 결혼했다.

작품은 1년에 한 번 열리는 축제 ‘젤리클릭 볼’에서 새롭게 태어날 고양이를 선택하는 이야기다. 각기 다른 특색과 인생 경험을 가진 고양이들은 그들의 삶을 하나씩 풀어놓는다. 최종 결정은 최고 연장자이자 지도자 올드 듀터러노미의 몫이다.

브래드 리틀은 올드 듀터러노미를 ‘등대’라고 표현했다. 움직임은 거의 없어도 고양이들을 보듬으며 묵직한 존재감으로 시선을 잡아끈다. 인터미션에 홀로 무대에 남아있는 것도 자리를 계속 지키며 고민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를 상징하는 단어는 현명함”이라며 “저는 한계까지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인데, 이 캐릭터를 통해 과유불급을 배웠다”고 말했다.

“캣츠를 한국에서 공연할 때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적인 요소가 많죠. 어려움이 있거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연장자를 찾아가요. 연장자를 존중하는 문화가 남아있죠.”

◆이안 존 버그 “나이든 극장 고양이 ‘거스’…연기할 때마다 아버지 떠올라”

극장 고양이 ‘거스’는 유명 배우였던 젊은 시절을 회상하며 달콤한 꿈에 젖는다. 하지만 현실은 나이가 들어 중풍으로 앞발을 떨릴 때 신세다. 이안 존 버그는 거스를 설명하는 세 가지 단어로 ‘우울감(melancholy)’, ‘깨지기 쉬운(fragile)’, ‘심통 부리다(grumpy)’를 꼽았다.

“고양이들이 자기소개를 하는데 거스는 처음엔 눈이 메기들 들어서 뭐냐고 사양하다가 입을 연 후엔 멈추지 않아요. 누구나 화려한 전성기가 있는데, 머릿속 여정을 끝내고 돌아오면 결국 현실이죠. 그래도 한 순간 꿈이었다고 슬픔이나 비극으로 여기지



않길 바라요. 가슴속에 아련하고 좋은 기억으로 남겨지길 바라죠.”

거스를 연기할 때면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면서도 배우였던 아버지가 유독 더 생각난다며 눈가가 촉촉해졌다.

“아버지가 아마추어 배우였는데 지역사회의 작은 공연장에 많이 있었어요. 배우 생활 끝물엔 저보다 더 공연을 많이 했을 정도였죠. 거스는 나이든 목소리를 내잖아요. 제가 본래 아버지가랑 목소리가 비슷하데, 그때 더 생각이 많이 나요.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연기하죠.”

그는 거스 외에도 젊은 시절 연극의 주인공 그로울타이거 그리고 부자 고양이 버스토퍼 존스까지 1인3역을 맡아 바쁘게 움직인다. “가발과 분장, 의상 등을 8번이나 바꿔야 한다. 두 번 공연하는 날은 16번”이라며 “고생은 조금 필요하디”고 웃었다.

“목소리도 여섯 번을 바꿔요. 나이 든 거스의 목소리였다가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듯 그로울타이거의 힘찬 목소리가 되고, 테너나 베이스로 오페라 가수가 되기도 하죠. 한 작품에서 여러 역할을 하는 건 행운이예요. 할 게 많아서 배우에게 즐거운 일이지요.”

브래드 리틀도 가장 좋아하는 고양이로 거스를 꼽았다. “정확히 말하면 이안의 거스죠. 캐릭터에 그의 자화상을 담고 있는 게 참 좋아요.”

“캣츠”는 1981년 영국 웨스트엔드에서 초연해 30개국에서 7550만명이 관람하며 흥행한 작품이다. 어느새 40살이 넘는 ‘캣츠’를 두 배우는 한국 관객들에게 끝까지 즐겨달라고 당부했다. “나이가 들수록 연기가 더 깊어지는 만큼, 저희 두 사람도 계속 지켜봐주세요. 와인처럼 숙성될수록 더 좋아질 테니까요.”

‘헤어질 결심’ 英 아카데미 불발...‘서부 전선’ 7관왕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이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감독상과 비영어 영화상 후보에 올랐지만 수상하지 못했다.

영국 영화 텔레비전 예술 아카데미(British Academy of Film and Television Arts·BAFTA)는 19일(현지 시각) 영국 런던 사우뱅크센터 로열페스티벌홀에서 제76회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을 열었다. ‘헤어질 결심’의 박찬욱 감독은 ‘서부 전선 이상 없다’의 에드바르트 베르거, ‘이니셰린의 벤치’의 마틴 맥도나,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의 대니얼

모두 수상 못해...‘서부 전선’ 작품·감독 7관왕

관·대니얼 웨이너트, ‘타르’의 토드 필드, ‘더 우먼 킹’의 지나 프린스바이스우드 감독과 함께 감독상 후보에 올랐다. 또 ‘헤어질 결심’은 ‘서부 전선 이상 없다’ ‘아르헨티나, 1985’ ‘코르사주’ ‘말없는 소녀’와 함께 비영어 영화상(Film not in the English language) 부문 후보로 지명돼 총 2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다만 수상하지는 못했다. 감독상은 에드바르트 베르거 감독이, 비영어 영화상 역시 ‘서부 전선 이상 없다’에 돌아갔다.

박 감독 영화가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 감독상 부문 후보가 된 건 이번이 처음이고, 비영어 영화상 후보에 오른 건 2017년 ‘아가씨’ 이후 두 번째였다. 한국영화가 2개 부문 이상에서 후보에 오른 건 2020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작품·감독·각본·비영어영화) 이후 두 번째였다.

‘헤어질 결심’은 박 감독이 2016년 ‘아가씨’

이후 6년만에 내놓은 신작이다. 한 중년 남성이 산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 ‘헤준’과 죽은 남자의 아내 ‘서래’의 로맨스를 그렸다. 배우 박해일이 해준을, 탕웨이가 서래를 연기했다. 이 작품은 지난해 5월 칸국제영화에서 감독상을 받았다. 영화제 상영 당시 전 세계 대부분 언론이 한목소리로 “결작”이라고 평할 만큼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내에선 지난해 6월 말 개봉해 189만명이 봤다.

올해 영국 아카데미의 주인공은 작품상과 감독상 등 7개 부문에서 수상한 넷플릭스 영화 ‘서부 전선 이상 없다’였다. 1929년에 나온 에리히 마리아 레마르크 작가의 동명 소설이 원작으로 1930년과 1979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영화화 된 작품이다. ‘서부 전선 이상 없다’는 이번 시상식에서 14개 부문 후보에 올라 작품·감독·비영어영화·각색·촬영·음향·음악 부문에서 상을 받았다.

최수종, 10년만 KBS 대하사극...‘고려거란전쟁’



탤런트 최수종이 KBS 1TV 대하사극으로 돌아온다. ‘대왕의 꿈’(2012) 이후 10여 년만이다. KBS 50주년 특별기획 ‘고려 거란 전쟁’(가

올해 하반기 방송 예정

제)은 거란과 전쟁을 승리로 이끈 고려 제8대 왕 ‘현종’과 그의 정처 스승이자 고려군 총사령관 ‘강감찬’(최수종) 이야기다. 강감찬은 70세 고령의 문관이다. 현종의 신임을 얻고 나라의 운명이 걸린 귀주대첩을 승리로 이끈다.

최수종은 ‘태조 왕건’(2000)부터 ‘해신’(2004) ‘대조영’(2006), 대왕의 꿈, ‘임진왜란 1592’(2016)까지 KBS 대하사극 전성기를 이끌었다. 고려 거란 전쟁은 대규모 전쟁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어려운 시기 국가를 현명하게 이끌어간 현종의 모습을 통해 교훈을 줄 전망이다.

‘태종 이방원’(2021~2022) 이정우 작가가 쓴다. 이 작가는 ‘최강 배달꾼’(2017)에서 호흡을 맞춘 전우성 PD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임진왜란 1592 김한솔 PD도 힘을 실는다.

하반기 방송 예정.

흑평에도...‘엔트맨과 와스프:퀸팀매니아’ 美 첫 주 1억 달러 ↑

마블 새 영화 ‘엔트맨과 와스프:퀸팀매니아’가 미국 개봉 첫 주말 1억 달러를 넘겼다. 이 시리즈 역대 최고 오프닝 기록이다.

‘엔트맨과 와스프:퀸팀매니아’는 17~19일 매출액 1억400만 달러(약 1350억원)를 기록하며 주말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다. 이와 함께 미국 외 나라에선 2억3300만 달러를 벌어들여 개봉한지 일주일도 채 안 되는 기간에 누적 수익 3억5000만 달러를 돌파했다. ‘엔트맨과 와스프:퀸팀매니아’의 개봉 첫 주 수익은 ‘엔트맨’ 시리즈 최고 기록이기도 하다. 2015년 ‘엔트맨’의 첫 주 주말 매출액은 5700만 달러, 2018년 ‘엔트맨과 와스프’는 76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다만 ‘엔트맨과 와스프:퀸팀매니아’는 미국 대중 평점사이트 로튼토마토에서 평점 49%, 미국 전문 평론 사이트 메타크리틱에서 48점을 받는 등 시리즈 중 가장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작품은 ‘엔트맨’ 시리즈 세 번째 영화다. ‘엔트맨 스카트 랭’(폴 러드)과 ‘탈 캐시’(캐스린

‘엔트맨’ 시리즈 최고 오프닝 수익 기록



뉴턴)가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양자 영역으로 빨려들어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이번 작품은 마블시네마틱유니버스(Marvel Cinematic Universe·MCU) 페이스5 첫 번째 영화다. 앞으로 새롭게 결성될 어벤저스가 맞서 싸우게 될 슈퍼 빌런 ‘캉’이 처음 등장하는

영화이기도 하다. 전작에 이어 폴 러드가 엔트맨을 연기했고, 조너선 메이저스, 예반젤린 릴리, 캐스린 뉴턴, 미셸 파이퍼, 마이클 더글러스 등이 출연했다.

연출은 전작 두 편에 이어 페이턴 리드 감독이 맡았다.

온유, 첫 정규 앨범 ‘씨클’ 다음달 발매

솔로 콘서트까지 기대 ↑

그룹 ‘사이니’ 온유가 첫 정규 앨범을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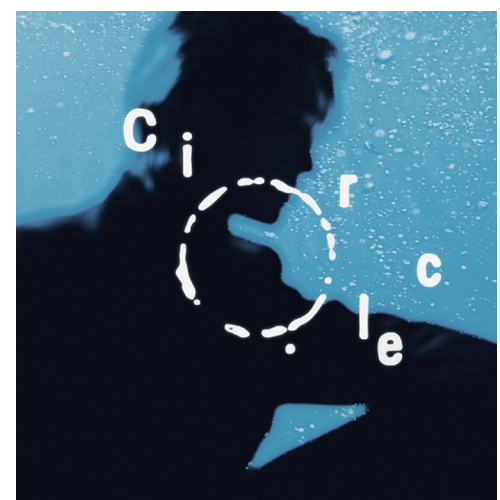
20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온유는 오는 3월 6일 첫 정규 앨범 ‘씨클(Circle)’로 컴백한다.

온유의 첫 정규 앨범 ‘씨클’은 다채로운 분위기의 총 10곡이 수록돼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이번 앨범은 온유가 지난 2022년 4월 선보인 두 번째 미니앨범 ‘다이스(DICE)’ 이후 11개월 만에 발표하는 신보다.

해당 앨범은 그동안 앨범뿐만 아니라 OST, 콜라베이션, 커버곡, 일본 솔로 투어 등의 활동으로 쌓아온 온유만의 음악 감성을 만날 수 있다.

온유는 앨범 발매 전 오는 3월 3~5일 3일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첫 솔로 콘서트 ‘온유 1st 콘서트 ‘오-뉴-노트



(ONEW 1st CONCERT ‘O-NEW-NOTE’)도 펼쳐, 컴백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전망이다.

한편 온유의 첫 정규 앨범 ‘씨클’은 이날부터 온오프라인 음반 매장에서 예약 판매를 시작한다.